

에너지절약에 관한 심포지움 개최

주한 스웨덴 대사관 개최 ('86. 3. 14~15)

주한 스웨덴 대사관에서는 오는 3월 13일과 14일 여의도 대한생명빌딩에서 에너지 절약에 관한 심포지움을 개최 합니다. 이번 심포지움은 에너지 생산, 건물내 에너지 절약 그리고 지역 난방에 대해 다수의 스웨덴 업체들이 참가하여 그 효과적인 방법 및 전략을 소개한 후 토의하게 됩니다. 특히 이번 심포지움을 위해 스웨덴의 에너지성 차관인 R. Annerberg 씨가 내한하여 스웨덴의 에너지 정책 개요를 소개할 예정입니다. 개최식 인사는 주한 스웨덴 대사 John Wingstrand 씨가 맡을 예정입니다.

이번 행사를 개최하는 이유는 최근 에너지 성력화(省力化)를 지향하는 한국이 최소의 비용으로 최대의 에너지를 생산하여 최고의 혜택을 누리기 위해서는 스웨덴의 독특한 에너지 관리 시스템을 검토할 필요가 있기 때문입니다. 양국은 모두 막대한 양의 석유를 수입하고 겨울에는 난방의 필요성이 큰점 등 많은 에너지 환경의 유사점이 있습니다. 스웨덴은 지난 10년간 총 에너지 소비중 석유의 비율을 70%에서 40%로 줄였고 산업 생산에서 에너지 소비를 20%나 감소시켜 효과적인 에너지 관리를 달성한 바 있습니다.

스웨덴이 개인당 에너지 소비가 세계에서 가장 높은 나라의 하나이면서도 또 효과적인 에너지 보존 관리를 할 수 있는 배경은 지역난방, 핵에너지, 폐에너지 재생 등 새로운 기술을 끊임없이 개발해 온 때문입니다.

이번 심포지움에 참여하고 있는 업체들은 주로 자체 지사나 대리점을 통해 상

당 기간 한국에서 활동해 온 업체들입니다. ASEA 그룹은 ASEA Korea를 통해, Fläk 그룹은 Godelius Korea를 통해, Alfa Laval은 Dekor를 통해 그리고 Tour & Andersson은 International Engineering을 통해 그간 에너지 산업을 포함한 각종 분야에서 활동해 왔습니다.

심포지움에서 토의될 내용은 열생산 지역난방 그리고 건물내 에너지 절약의 순서인데 이를 위해 이들 업체 및 스웨덴 정부 기관들은 한국이나 스웨덴에 근무중인 고위 담당자들을 파견하여 각종 신기술과 개념을 소개 발표 및 토의할 예정입니다.

먼저 열생산에 있어서는 ASEA 그룹이 MBC (Multi Bed Combustion)와 PFBC (pressurized Fluidized Bed Combustion)를 소개할 예정인데 이는 환경 오염의 위험을 줄이고 기존 한국의 저질탄을 활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또한 ASEA의 원자력 지역난방 시스템인 SECURE 역시 소개되어 핵에너지가 도시 난방에 사용될 수 있는 방법이 발표될 것입니다. 폐열 및 에너지 재생을 위해서는 Alfa-Laval이 열교환기에 대해 설명하게 됩니다.

두번째로 지역난방에 대해서는 Tour & Andersson의 자동 제어 장치에 대한 소개와 지역 난방 개념 및 전략 그리고 경제성에 대하여 광범위하게 설명될 예정입니다.

세번째로 건물내 에너지 절약에 대해

그 사례 실적과 철학 그리고 도시 계획에 끼치는 공헌도에 대해 발표가 있을 예정입니다. 여기에는 또한 Flakt가 옥내외 공기 교체시 효과적인 방법 등도 추가하여 설명할 것입니다.

이밖에 참여하여 발표할 업체로는 S-MHI, Fluidcarbon, CTC, Swedis-District Heating Ass., Swebex 등의 업체들입니다. 이들 중에는 스웨덴 정부의 한 조직으로 연구 개발에 종사하고 있는 기관들도 포함되어 있어서 에너지 관리의 상업적인 측면 뿐 아니라 정책적인 고려 사항에 관해서도 언급하게 됩니다.

이들 스웨덴 업체가 제시하는 또 다른 협력 조건은 기술 이전에 대한 긍정적인 태도입니다. 비행기로 하루가 걸리는 먼 거리에 위치한 한국에 최종 제품을 운반하기는 용이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들 스웨덴 업체들은 가능한 한 국산화율을 높여 장래에는 현지 생산이 가능토록 하는 진보적인 경영 철학을 가지고 있습니다. 현지국(理地國)의 부가가치 생산에 주력하고 있는 이들 업체들이 소개하는 것은 하나의 제품이라기 보다는 새로운 기술과 개념입니다.

대등한 입장에서 상호 기술 협력을 전제로 하는 양국간의 에너지 관계 협력의 좋은 계기가 될 이번의 심포지움에는 국내의 산업, 정부, 학교 기관 등 각계 각층 관계자들이 참석할 예정입니다.

기타 자세한 문의를 주한 스웨덴 대사관 (전화720-4767) 심포지움 담당자에게 문의 하시기 바랍니다.